

소아응급환자 연중무휴 진료 가능

군산시, 키움병원과 ‘공공심아어린이병원’ 운영 협약 체결
평일 오후 11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27일 키움병원과 ‘공공심아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7일 키움병원과 ‘공공심아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운영육, 박신영, 황민우 키움병원 공동대표 원장 외 병원 관계자들, 군산시 보건소 성낙영 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아 청소년 환자의 야간 진료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으며,

앞으로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와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상호 협력과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 가 되었다.

시 관계자는 9일 “올해에도 시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필수·지역 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시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군산시는 16개소의 소아청소년 과 의료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나 평일 저녁8시 이후에는 외래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공공심아어린이병원이 진료를 시작하면서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아 응급실 이용 시 생기는 고비용 부담 해소 △장시간 대기 문제 해결 △소아환자들이 신속하게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소아 청소년 환자에게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군산시, 시의회, 민간이 모두 협력한 결실.”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군산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와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협약을 마친 키움병원은 3월 4일부터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일 오후 11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를 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경건위,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기후환경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수도과·하수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26일 군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기후환경국 5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기후환경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김영구 의원은 고군산군도 국가 지질공원의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금지 행위에 대해 현재 홈페이지에서 ‘삼가 바랍니다’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안내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보다 명확하고 엄격한 금지 문구로 수정해 지질공원의 보존에 힘을 쓸 것을 주문했다.

윤신에 의원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된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폐교를 활용하거나 금강미래체험관을 통한 생태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김경구 의원은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운영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압축배일당 실제 소각량 비율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할 것을 요청하며, 현장 확인 작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녹지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지해춘 위원장은 새들공원 어린이 숲놀이터 조성과 관련하여, 큰 나무를 식재하여 여름철에도 아이들이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와 업무보고에서 박경태 의원은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제시된 자재를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대안을 찾아 최대한 많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강조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행복위, 올해 주요업무보고 청취

경로장애인과·아동정책과·여성가족청소년과·도서관관리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26일 군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교육국 4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경로장애인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서동환 의원은 파크스크린 골프사업과 관련해 현재 민간에서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만큼, 공공 부문의 사업 참여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업 위치 및 대상자,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세웅 의원은 부부단(부부 합장보)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공간 확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시 집행부에 요청했다.

아동정책과 업무보고에서 이연화 의원은 폐쇄된 어린이집 종사자들 중

일부가 타 지역에서 돌봄 사업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군산시도 구인 정책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제도 도입검토를 주문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어린이랜드 진입로 정비가 미흡하여 동선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그늘막 설치에 그치지 않고, 전면적 확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업무보고에서 성경민 의원은 성폭력 상담소 운영과 관련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문가 초빙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에서 우종삼 의원은 상상도서관 건립 사업에 17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근로자 통근버스 운영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를 운행한다.

출근 버스는 오전 7시 17시 30분 18시 10분 18시 15분에 원광대병원 맞은편에서 출발해 보건소, 홈플러스 사거리, 전자랜드 사거리, 포레나 사거리, 부승우남아파트, 팔봉기안아파트를 거쳐 왕궁 국가식품클러스터로 향한다.

퇴근 버스는 오후 5시 10분 5시 40분 6시 5분 6시 15분에 산단 입구에 있는 씨앤씨(CNC)커퍼부터 권컴퍼니까지 산단을 순환한 후 출근 노선의 역순으로 운행한다.

자세한 정보는 카카오로 채널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또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4년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 기관 선정

행안부 주관,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 실시… 창의·혁신적인 행정 노력 인정받아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혁신 성과와 관련된 11개 세부 지표를 정성·정량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평가 항목은 △혁신역량 △현장 중심 소통 △서비스 개선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행정 효율화 등으로 구성됐다.

군산시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를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성과를 창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부문에서 강임준 시장의 주도적인 혁신 추진과 소통 행정이 돋보였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숙의 정책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정책장터 ‘우리들의 군산’ △시민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는 ‘시장이 찾아가는 열린 북앤북’ △전 직원과 소통하는 ‘시장과의 직통대화 당.나.귀’ △저연차 직원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시티 군산’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조직 내 혁신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한 군산시는 성과관리 체계 개선으로 행정 혁신역량을 강화했으며, 혁신적 조직 운영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 중심 소통으로 민생문제 해결’ 부문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성산면 산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으로 환경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갈등을 해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외에 △미군-농업인 간 소통 창구 개설 및 농업용 드론 비행 허가 주기 연장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을 통한 군산시 어선 전복사고 지원 등으로 주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했다.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부문에서도 두드러진 혁신을 이루었다. △모바일 온나라용 태블릿 PC 결재 시스템 도입 △대면결재 시간 알림 시스템 구축 △서무 행정효율 높은 ‘군산시 서무실록’ 제작 △‘중이 없는’ 스마트 전자회의의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 추진하여 업무처리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합리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어냈다.

앞으로 군산시는 ‘군산시 혁신 주니어보드(정책반올림)’ 운영을 지속하며, 혁신 우수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캠페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변화된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끌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장애인 자립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익산시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시는 27일 ‘자립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사)늘사랑이 업무 협약을 체결해 민간협업 체계를 구성했다.

자립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익산시 자체 사업으로 주택임주 장애인에게 최대 21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우선 지원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시설 장애인인 시설 퇴소 시 1,0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이 지원되는 반면, 재가 장애인은 의지가 있음에도 지원금이 없어 자립을 위한 주택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시는 장애인의 일시적 보증금 부담을 낮춰 원활한 주거이전을 돕고자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재원은 후원을 통한 주거 지원 기금으로 마련되며, 이르면 3월부터 사업 운영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청년뜰 중심 유관
기관과 청년지원 협력 맞춘

군산시는 2025년 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청년 활동 활성화 및 청년 취·창업지원 사업의 연계 확대를 통한 청년 지원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7일 청년뜰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는 청년뜰을 비롯한 군산고용복지+센터,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서부지사, 관내 대학, 고등학교 등 총 20개 기관의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관련 안건을 논의하였다.

군산시 청년뜰에서 운영하는 2025년 청년·창업센터 프로그램은 누리집, 사회관계망(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청년뜰 누리집(<http://gsyouth.or.kr/>) 또는 대표전화(☎063-471-155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